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기획자 대담

제2회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
<short story long - 장마>

일시 : 2015년 7월 22일 (수) 오후 4:00 - 5:2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기록 : 윌링앤딜링

김인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윌링앤딜링에서 진행하는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 <short story long -장마>의 두 젊은 기획자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의 교수님이신 임산씨가 오늘 기획자 대담의 패넬로 자리해주셨습니다.

임산 : 안녕하세요. 임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수첩인데요, 펼쳐보니 작년에도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의 기획자 대담을 이맘때 했었던군요. 작년 8월 1일로 적혀져 있습니다. 기획자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미술계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제인 장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김미소 : 저희는 전시 오프닝 전 두 달 반쯤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시 오픈날짜가 정해져있는데, 전시를 같이 해보자는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손주영씨와 처음만나서 좋아하는 것과 작가들, 작업들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각자가 욕심이 있었는지, 마음에 쏙 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화 중간에 그냥 그 날 날씨가 좋아서 제가 '날씨가 좋네요.'라고 한 말을 듣고 손주영씨가 주제를 장마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전시기간이 장마 기간이면서 장마란 주제 자체가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작가 분들에게 신작을 부탁드리기에도 마음이 조금 가볍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선 :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순 없잖아요. 손주영씨는 어떠셨나요?

손주영 :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처음에 얘기하신대로 작가들로 접점을 찾기 위해 서로 작가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의 이름이 하나도 안 겹쳤거든요. 주제를 정하기 위해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앉아서 둘 다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두 달 후면 장마기간인데 싫어 장마로 하기로 된 것입니다. 두 달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큰 무언가를 다루기보단 단 기간에 소화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임산 : 그렇게 결정하신 장마라는 주제가 각 작업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작업과도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선택한 작가가 다른

가요?

손주영 : 작가는 총 일곱 분이고, 권혜성, 엄유정 작가는 둘이 함께 작업 했으므로 여섯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충현 작가님과 엄귀현 작가님은 기존 작업을, 나머지 작가들에게는 신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미소 : 말씀드린 것처럼 노충현 작가님은 기존 작업을 부탁드렸는데요, 장마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저희 둘 모두 노충현 작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전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작가님이기 때문에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심의 풍경화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가들이 많지 않은데, 노충현 작가님께서 도시의 풍경을 지속적으로 그리시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여쭙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풍경화라면 자연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도시화가 된 후에는 현대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현대의 풍경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셨고, 작가님의 그런 탐구하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전시장 안쪽 엄유정 작가님과 권혜성 작가님이 그리신 드로잉 작업은, 처음부터 협업을 의뢰 드렸습니다. 장마라는 것이 비가 계속 오고 눅눅하지만, 비가 시원하게 오면 기분이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감정이라고 설명하기 애매모호하고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저는 협업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분을 괴롭힌 것인데, 두 작가가 만나서 장마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드로잉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분이 장마에 대한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나머지 한분은 그 작업을 보고 피드백 드로잉을 드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 하셨습니다. 제 처음 의도는 그 과정 안에서 작가가 처음에는 장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였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에 대한 기록물들이 전시장에 함께 전시되었으면 했지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주영 : 앞에서 노충현 작가님과 엄귀현 작가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특정 날씨와 한 작가가 연결되어 떠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마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노충현 작가님의 그림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노충현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엄귀현 작가님은 몇 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제게 작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본 작업들이 좋았고, 이 전시를 기획하고 주제가 정해졌을 때 제게 보여준 작업이 생각났습니다. 노충현 작가의 그림이 장마에 대한 일러스트처럼 존재할 수 있다면, 엄귀현 작가의 작품은 장마에 관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로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그 사이에 다른 작가들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엄귀현 작가님을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작가에게 신작을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기 편한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들 대부분이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노상호 작가를 섭외한 가장 큰 이유는 노상호 작가는 마치 공장처럼 매일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일리 픽션' 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어느 정도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작가를 섭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 장마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노상호 작가가 어떤 작업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또 장마를 떠올렸을 때, 빗소리를 생각했고 사운드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작가들이 몇 명 있었지만, 처음 전시를 기획하는 저와 비슷한 입장의 작가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현남 작가를 섭외 하였습니다.

박아일 작가를 섭외한 이유는, 처음엔 협업을 생각했습니다. 노상호, 현남 작가 사이에서 무언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박아일 작가의 지난 작업들을 보면 시나 글을 쓰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공연하는 형태에서 추가로 조형물이 들어가거나 영상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 자체에서 완성도가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마란 키워드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임산 : 주제를 듣고 어떻게 접근하고 작업을 구상했는지 작가님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남 : 저는 처음 섭외 과정에서 주제는 장마인데 그와 관련된 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들릴 수 있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운드를 비롯한 키네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도해보고 싶었던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며 장마에 관련된 소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박아일 : 전부터 노상호 작가의 그림으로 영상작업을 만드는 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손주영 기획자가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와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시와 협업에 대해 기획자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가 생각했던 협업과 달라서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상호 작가의 그림이 영상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노상호 작가의 드로잉을 제가 조형물로 만들어서 영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했는데 생각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작업을 진행할 때 '장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장마에서 연상이 되거나 영감을 얻는 등의 작용을 한건가요? 작업을 완성하기에 짧은 시간이라 작가로서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아일 : 장마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대학교 수업에서 이런 주제가 주어진다면 다들 주제에 얽매어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걸 마음대로 다 해보고, 연결은 기획자가 잘 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웃음) 저 같은 경우에 장마라는 것이 물이라는 분위기로 다가왔었고, 물은 영어로 '워터', 수박은 '워터멜론'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귀현 : 저는 신작이 아니라 전에 했던 작업입니다. 제목부터 정하고 시작을 했던 작업인데, '눈물이 뭉게뭉게'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이미지들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눈물이 수증기처럼 뭉게뭉게 올라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상상을 이어가며 풀어낸 영상작업입니다.

엄유정 : 권혜성 작가와 저는 10년 지기로 오래 알고 지냈지만 서로 작업을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업을 하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들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서로 다른 미

묘한 다른 지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작업을 했는데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 작업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임산 : 전시라는 것을 작가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써 말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가 주체가 되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기획자 분들이 평소 알고 있고 연구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이 전시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전에는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소 : 학부 수업에서 노충현 작가의 작품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작업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노충현 작가님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마, 수해와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장마에 관한 작업에 왜 비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전에 노충현 작가님께 질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장마 그림에 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장마기간이라고 매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장마기간 대기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 상태를 그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신다는 대답을 듣고 장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산 : 아직 전시가 끝나진 않았지만, 기획자분들이 이 전시에 대해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시를 비평할 때, 기획자들이 자신의 활동 중 어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떤 의미의 권력을 갖고 싶은지, 목표했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소 : 기획 단계에서 전시기간을 생각했을 때 장마와 겹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시 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장마와 날씨가 너무 달라서 전시 초기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장마기간이라는 것은 7월초부터 8월까지 시기적으로 매년 존재하지만, 그 기간에 맞춰 항상 비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장마 기간에도 충분히 이 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가님들께 신작을 많이 부탁해 놓은 상태였고, 손주영씨와 제가 서로 작가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생각보다 갤러리가 딱 차고 다양한 매체의 작업들로 전시가 풍부한 느낌이 들어 만족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짧은 준비기간에 신작을 부탁드려 걱정도 되었지만, 결국 작가님들이 모두 좋은 작품을 주셔서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획면에서는 손주영씨와 제가 전시를 기획하는 초기에는 만남을 많이 갖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작가가 정해진 후에는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손주영 : 솔직히 말하면 전시 설치를 마치고 '그래도 전시 구색은 맞추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저 스스로도 구색을 맞추는데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께서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각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더라면 더 좋은 전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산 : 공동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손주영 : 처음에는 '어떻게 공동으로 기획을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면 판단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데 다수결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정이 더디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소 :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영씨도 쪽 미술계에서 일하시던 분이고 나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막연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글이 하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생각이 달라서라기보다 글을 쓰는 방식과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법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임산 : 앞으로 다른 기획자들에게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은 혼자서 해야 할 일인데 둘 혹은 셋이어서는 잘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기획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없지 않나요?

손주영 : 기획자가 두 명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기보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였고 생각을 맞추어 볼 충분한 시간 없이 전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산 : 신작은 상상으로만 디스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신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시 설치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작은 설치 과정에서 작가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어떠셨나요?

손주영 : 전시 디스플레이를 시작할 때 모든 작가와 기획자가 함께 모여서 최선의 위치를 정하고 무리 없이 설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미소 : 각자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의 설치가 끝나고 전시장을 둘러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노충현 작가의 작업이 다른 작업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가 시작되고 제 임의대로 작품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그림의 조명 밝기를 좀 더 밝게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향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것 같아 전시 설치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 : 두 분이 기성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확충하고 작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 전시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없는 일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고 홍보나 예산 집행 등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김미소 : 설치는 작가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작품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조율해서 진행되었고, 학교에서 조교를 하면서 예산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은 주로 제가 담당했습니다.

설치의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인데, 큐레이터가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로 영상작업은 프로젝터를 이용해 틀면 되는 거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자재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영씨가 저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산 :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손주영 :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김인선 선생님께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의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제 1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홍보할만한 곳을 알아보고 기사를 작성해서 보내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 : 아직 전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카이빙 계획이 따로 있나요?

손주영 : 현남작가 같은 경우는 사운드 작업이 사진에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기록하고 다른 부분들은 윌링앤딜링에서 해오던 방식으로 아카이빙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임산 : 도록을 구성하는데 특별한 컨셉이 있나요?

손주영 : 예산문제 때문에 도록의 디자인을 윌링앤딜링에서 주로 의뢰하는 분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같은 부분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록에 실리는 글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록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산 : 두 분 기획자의 글과 작가의 소개 글 등 인가요?

손주영 : 김인선 선생님 글과 임산 선생님 글, 그리고 기획자의 글이 있습니다. 기획자 글은 미소씨가 쓴 것과 제가 쓴 것을 엮어서 썼고, 작가에 대한 글은 미소씨와 제가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추려 인터뷰형식으로 이미지와 함께 짧게 실으려고 합니다.

임산 : 과정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세요.

김인선 : 저희가 주최한 프로그램이니 스스로 정리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대한 기획자들에게 죄송했던 것은 준비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것,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예산안에서 다 소화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기획자분이 한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한 분은 학교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소화를 했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실무를 제대로' 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저도 마음이 약해서 두 기획자분을 충분히 압박하지는 못했지요.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두 분이 알아서 시간을 맞춰서 잘 진행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작가들에게 많은 신작을 요구했음에도 전시가 시간에 맞춰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시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이 전시를 준비하는데 가장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십년 넘게 실무를 해온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제대로 못 챙기고 정확히 안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설치를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작가들과 원활하게 대화가 되고 진행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듯이 홍보를 하거나 보도자료 작성하는 등의 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기획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전시를 만들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시를 어떻게 알리고 남기고 기록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할 것인지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에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프리젠테이션 하지만,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리이러한 전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시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제가 한 번에 드린 전체 예산에 홍보비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 입장에서 전시장의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것이 장마랑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작업이 나왔고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얻기는 힘들어요. 뉴스레터에 전시에 관한 글이 짧게 실리지만 전시 전에 나오는 전시 소개 차원의 인터뷰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관객이 전시를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작가들의 성향과 활동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작품설명으로서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시에 대한 기획자의 글이 최소한 전시가 끝나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치가 끝난 후에 진이 빠지고 한 숨 돌렸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힘을 내서 텍스트를 만들어 안내를 상세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전시장이라는 공간과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액티비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부해가면서 직접 조언을 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음 전시 때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실무라는 것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전시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임산 : 매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아쉬운 기분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기획자들 외에 관객분들이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인선 : 엄귀현 작가의 영상 작업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작품이었는데, 프로젝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작가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색상과 해상도가 모두 좋지 않은데, 보다 구현이 잘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주영 : 원래는 전시장이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벽면을 모두 회색으로 칠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설치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전시장 보다 더 작은 공간을 페인트칠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벽면을 회색으로 칠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을 실제로 둘러보니 조명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엄귀현 작가의 영상작업은 더욱 벽면에 가득차고 선명한 것을 기대했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점 말고는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임산 : 기획자에게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관객 : 작가가 작품을 만들 듯이 큐레이팅도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의 주제인 '장마'가 그저 물리적인 장마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냥 단순히 전시가 장마철이니 주제를 장마로 정한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장마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전시의 구성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작가들에게 신작을 의뢰할 때,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기획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기획자가 두 명이기에 때문에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완성도 있는 좋은 전시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면 도대체 왜 전시를 기획하신 건가요? 그냥 안하면 되는데 말이지요.

김미소 :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초기에 신작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엮어서 특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장마기간에 날씨가 좋다거나 혹은 싫다거나 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면 때문에 장마기간에 느끼는 감정을 분명하게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는 적당한 단어가 없을 때에는 시청각적인 이미지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장마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작가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장마에 대한 이미지 언어들로 전시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장마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손주영 : 처음에는 장마철에 장마에 관한 전시를 해보자 라고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와 비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마의 속성을 생각해보니 장마는 비가 계속 오는 기간이고 장마의 이름도 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시간을 포함한 개념인데 비가 오는 시간을 다룰 수 있는 작가들을 섭외하였습니다.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우울하고, 처지는 감정에 빠지는 느낌의 작업들을 상상했었고, 그런 점들이 보이는 작가 혹은 작업들을 섭외했어요. 기대했던 분위기가 잘 합쳐진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산 : 협업을 통한 큐레이팅을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이 있었나요?

손주영 : 저 혼자 전시를 기획하거나 저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다면 장마를 주제로 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미소씨와 기획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장마라는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작가들과 전시를 함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서로 잘 맞지 않는 상태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김인선 : '장마'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둘이서 부딪히지는 않겠다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맞추기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뜻이 서로 잘 맞는 친구들끼리 시간을 많이 갖고 일을 해도 서로 싸우고 토라지고 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른 것이 핸디캡이기도 하지만, 그런 둘이서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새도 없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긍정적인 각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임산 : 신진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이 이번으로 2회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큐레이팅에 관심이 많고 전시담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이 프로그램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우리 미술계에 전시에 대한 좋은 의미의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또 동년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주영 : 작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공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이 작가들이 조금 더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길 원합니다. 저는 이론보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기획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시 기획 및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 전시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두 기획자가 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기관에도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스터디 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미소 : 전시를 진행할 때는 타임테이블이 중요하잖아요. 작가섭외가 끝나야 하는 시기가 있고, 홍보를 위해서는 보도자료가 완성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듯이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타임테이블을 만들긴 했는데, 둘 중 누가 나서서 계획된 날짜대로 강하게 몰아붙이기에는 서로의 관계가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째로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저는 전시 진행, 손주영씨는 기자채들을 구매하는 부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다보니 실제 지출 내용이 계획과 다르게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계획된 것을 지켜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돈으로 전시를 해결하는 것도 기획자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전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에 압력을 가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주영씨가 작가한테 전시 기획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전시를 진행하면서 손주영씨가 작가이기 때문에 잘 움직여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진행한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주영 : 제가 전시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로 전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획에 관

심이 있어서 전시 기획서를 작성해서 김인선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굳이 저 같은 작가에게 전시 기획을 하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기획했던 것들이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아쉽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타협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 더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인선 : 시간적인 부분은 바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여유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미소씨가 말씀한 누군가가 푸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초반에는 저는 나름 푸시를 주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스스로 지키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인 방향의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겠습니다.

임산 : 앞으로도 윌링앤딜링에서 진행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예비 기획자 두 분도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선 :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